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
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어판 japan.gnpnews.org
 중어판 china.gnpnews.org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2. 10. 30 ~ 2022. 11. 19 제273호

열방을 품은 기도24·365 20주년 완주감사예배

2022 완주감사예배, 11월 24일 열려

전 세계 240개 나라를 1년 365일 매일 한 시간씩 기도하는 기도24·365 기도체인 이 올해로 20회를 맞아 오는 11월 24일 '기도24·365 20주년 완주감사예배'를 드린다.

기도24·365본부(이하 기도본부)가 주관하는 24·365 기도는 2003년 4월 1일에 시작돼, 매일 정한 시간에 각자의 고향에서 2만여 명의 기도자들이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온 기도운동이다. 또한 기도본부는 2008년부터 교회와 소규모 공동체에서 6일간 24시간 연속, 또는 1주일에 몇 시간 연합하여 1년 52주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느헤미야52

기도도 진행해 왔다. 기도본부는 이렇게 1년 동안 각 개인이 24·365기도로 고향에서 기도한 것과 교회의 느헤미야52기도가 합쳐져 연속 기도하게 하신 것을 기념, 매년 기도자들과 함께 완주감사예배를 드려왔다.

특히 올해 20주년을 맞아 이 기도를 처음 시작했을 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인 이사야 62장의 말씀이 기도본부와 기도자들, 열방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며 더욱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기도본부는 밝혔다.

이번 '2022 완주감사예배'는 '구원의 횃불로, 깃발을

들라!'(이사야 62:1,10)는 주제로 수년을 기도해 온 기도자들의 간증과 전 세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상황들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번 완주예배는 11월 24일 오후 6시 30분, 서울 광진구 화양감리교회(담임 최상훈 목사)에서 현장예배로 드려진다.

기도본부 박미애 선교사는 "열방의 파수꾼으로 각자의 고향과 교회에서 기도의 능선을 구축하며, 주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여 선교 완성을 이루는 위대한 증인된 기도자들을 2022 완주감사예배에 초대한다."고 말했다.



[GNPNEWS]



▲ 2020년 완주감사예배 현장. © 복음기도신문

Interview

김창식 선교사(하나되는 교회)

“모지리 같은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행복해요”

김창식 선교사는 최근 대 한시문화협회에서 신인 문학상을 받았다. 연약한 자신의 인생을 시로 담은 '모지리 토마토' 시집에는 그의 인생이 담겨있다. 굴곡진 인생의 순간들을 시 한 편, 한 편으로 담아 낸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4면에 계속

마음의 눈을 밝히사 (57)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로마서 7:24)

성경에서 이 말씀을 발견하면 순간 눈이 번쩍 떠집니다. 그리고 안심합니다. '사도 바울도 놀라운 복음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구나! 그래, 그렇지... 여전히 육체 안에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가. 죽어 천국에 가서 온전히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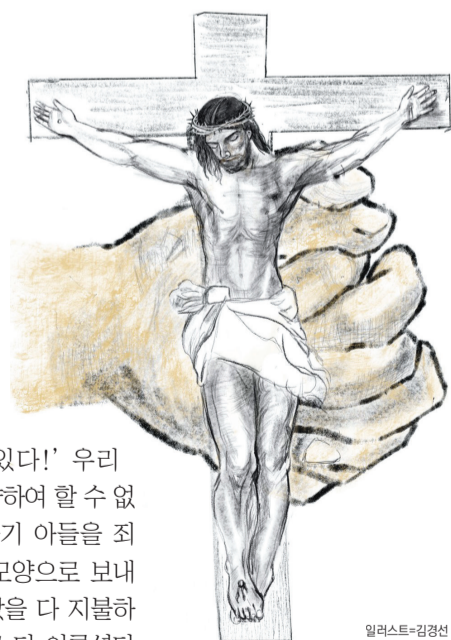
가능한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돌려 자빠지려고 작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로마서 7장의 함정입니다. 여기서 논란은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이 한 가지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기준, 즉 하나님이 원하셨던 원형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결국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낼 수 있는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0절까지 결론은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지켜야 되는 법, 살아야 되는 법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율법 외에 다른 한 '의(義)'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로마서 3:21).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무와 율법으로' 살아야 되는 법'이 아닌 '살게 하는 법'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논리가 성경 전체의 논리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로마서 7장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

룰 수 없다. 그래서 복음이 주어졌는데 복음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이것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로마서 8:4).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주셨습니



일러스트=김경선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생명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GNPNEWS]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김용의.규장.2017)에서 발췌

복음의 소리 316전화

- 복음이 뭔지 궁금하신가요?
-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1670-3160

운영시간 10~22시
상담시간 40분

장난 전화는 삼가주세요

포토뉴스

두 번의 군사쿠데타 넘어, 회복 갈망하는 부르키나파소



▲ 부르키나파소 꼬꼬리 마을에서 노방전도를 받은 현지 여인들. 제공: WMM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는 이슬람 극단주의 소요와 더불어 최근 1년 사이 두 번의 군사쿠데타와 34세 최연소 군정지도자를 임시 대통령으로 맞으며 불안한 정국을 이어가고 있다. 첫 군사 쿠데타는 지난 1월에, 두 번째 쿠데

타는 8개월만인 9월 30일에 일어났다. 이들은 모두 기존 정권이 이슬람 급진세력을 대응하지 못해 치안 악화 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축출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는 2차 쿠데타를 일으킨 이브라힘 트라오레 대위가 임시 대통령이 됐다. 이런 상황에는 말리에서 시작된 이슬람 급진세력 준동과 프랑스군의 주둔, 2024년 7월 새 대통령 선거 공약 등 복잡한 내용이 얽혀 있다. 전문가들은 이슬람 급진주의자 소요에 대응하기에도 모자란 때에 이어지는 쿠데타와 내부 싸움을 우려한다. 부르키나파소는 7년째 이어지는 이슬람 세력의 무장 공격에 수천 명이 사망하고 200만 명 이상 실향민이 발생했다.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사 33:6)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수단, 기독교로 개종한 부부 '간통죄'로 고소당해

수단의 기독교인 부부가 서로에 대해 간통과 배교 혐의로 기소됐다고 14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전했다. 이들은 무슬림 상태에서 결혼했지만 남편이 기독교인이 된 후 강제 이혼당했다. 이후 2020년 배교가 법적으로 비범죄화되면서 부부는 재결합해 아내도 기독교인이 됐지만, 가족들은 두 사람을 간통 혐의로 신고해 체포됐다.

이미 법적으로 배교 혐의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수단의 영적 분위기를 피해 주십시오. 개정된 법에 따라 교회와 성도를 공의롭게 대하게 하시며, 믿는 자들에게 날로 담대함을 더해 주십시오.

칠레, '제3의 성' 신분증 발급... 성별 'X'표기 중남미 국가 늘어나

칠레가 지난 14일 자국내 최초로 성별을 'X'로 표기한 '제3의 성' 신분증을 발급했다고 17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4월 중남미 최초로 성 중립 신분증명서를 인정했으며, 멕시코와 콜롬비아가 뒤를 이었다. 뉴질랜드, 독일, 호주, 네덜 등도 제3의 성 표기를 허용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창조 질서와 주권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은 혼란과 파멸을 불러올 뿐임을 깨달아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동성애와 젠더 다양성 등의 불의에서 벗어나 십자가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605개 시민단체 연합, '2022 개정 교육과정' 폐기 요구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교과서의 정치교재화, 동성결혼 정당화, 포르노를 방불케 하는 급진적 성교육 등에 대한 우려가 거듭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폐기하기 위한 605개 단체의 연합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이하 교정넷)'가 10월 14일 출범했다고 최근 크리스천투데이가 전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교육으로 패역한 세대를 양산해내는 교육과정을 폐기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참 교육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정책 말은 자들이 다음세대를 죽을 길로 밀어 넣는 죄악을 범치 않게 하시고, 다음세대를 지키는 영적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십시오.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2년 10월 31일 ~ 2022년 11월 19일

10월 31일 ~ 11월 5일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강**)010-7364-9982, 10.31~11.4(11~17시)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11.1(11~13시) ▶경기 수원 / 주의교회(이**)010-5006-5529, 11.1,3~5(20~22시)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010-5186-0091, 11.4(10~14시) ▶경기 부천 / 어울림교회(박**)010-2664-6936, 11.4(10~17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11.4(12시)~5(12시) ▶대구 중구 / 서현교회(권**)010-9275-7843, 그 외 11교회 진행중.

11월 7일 ~ 11월 12일 ▶강원 횡성 / WMM복음사관학교(박**)010-7384-4641, 11.7(05~24시) ▶울산 중구 / 태화교회(박**)010-9326-7767, 11.7~9(13~17시) ▶강원 고성 / 가마골교회(홍**)010-3191-8622, 11.7~12(10~20시) ▶서울 광진 / 빛과소금선교회(권**)010-7754-1726, 11.9,11(10~12시) ▶경기 광주 / 창대교회(김**)010-4715-3727, 11.10(0~24시) ▶전북 전주 / 사랑하는교회(이**)010-7709-0691, 11.12(09~21시) ▶경남 김해 / 진영소망교회(김**)010-4567-8775, 그 외 6교회 진행중.

11월 14일 ~ 11월 19일 ▶전남 담양 / 물댄동산교회(조**)010-6429-7027, 11.17(20~22시) ▶충남 서산 / 선한목자교회(최**)010-4828-3408, 11.18(10~14시) ▶경기 부천 / 어울림교회(박**)010-2664-6936, 11.18(10~17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11.18(13~16시) ▶전남 순천 / 우리동네작은교회(강**)010-7129-7224, 11.19(09~18시) ▶경남 진주 / 예수로교회(윤**)010-7925-6004, 그 외 6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8267-4365)

트랜스젠더 위험성 알리는 '탈(脫) 성전환 다이어리' 개봉



▲ 'The Detransition Diaries'의 출연자가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전환을 시도했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하고 있다. 출처: 유튜브 채널 The Center for Bioethics and Culture Network 캡처

미국에서 트랜스젠더의 위험성을 알리는 다큐멘터리 영화 '탈(脫) 성전환 다이어리(The Detransition Diaries)'가 개봉됐다고 미국 기독교매체 월드가 최근 전했다.

생명윤리와 문화 네트워크센터(Center for Bioethics and Culture Network, CBC)가 제작한 40분 길이의 새로운 다큐멘터리 영화 '탈 성전환 다이어리'는 트랜스젠더 운동의 문제점을 밝히 드러내고, 젠더 이데올로기에 의해 삶이 송두리째 뒤바뀐 사람들의 이야기, 사진, 증언을 담았다.

탈 성전환 다이어리는 리딘스키-스미스(Lidinsky-Smith), 캐틴슨(Cattinson), 헬레나 커슈너

(Helena Kerschner)라는 세 명의 젊은 여성에 초점을 맞춘다. 각 여성은 과거에 성별불쾌감을 겪은 적이 없었지만, 성전환 지향에 빠지기 전 섭식장애, 정신건강 문제, 자신의 몸매에 대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각 여성이 테스토스테론 주사를 맞기 시작했을 때 처음의 행복한 기분을 묘사하며 부드러운 피아노곡이 연주되지만, 각 여성은 약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피해를 겪은 일과 이로 인해 생긴 의심과 후회를 나눈다.

그중 리딘스키-스미스(28세)는 평생 자기 신체에 대한 집착과 불편함, 남성성에 대한 환상으로 인해 22세에 테스토스테론 주사를 맞기 시작했고 얼마 후 유방 절제

술을 받았다. 그러나 리딘스키는 트랜스젠더로 사는 삶을 후회하고 트랜스젠더 생활 방식에서 돌이킨다. 영화가 끝나갈 무렵 리딘스키는 무엇보다 교차 성 호르몬 복용으로 인해 아이를 낳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후회한다면서도, 우리의 이러한 외침이 더 이상 부정될 수 없어서 좋다고 말했다.

CBC 대표이자 감독인 제니퍼 랄은 "우리는 탈 성전환 이야기가 얼마나 강력하고 또 관객들이 이 이야기에 얼마나 많이 공감하는지를 본다."며 "우리는 또한 주류 미디어에서 탈 성전환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보내는지를 본다. ...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현재 비메오(Vimeo)에서 시청할 수 있는 이 영화는 작년에 제작된 또 다른 CBC 다큐멘터리 트랜스미션(Trans Mission)의 후속편이다. 트랜스미션은 성 정체성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한 '성별 확증' 접근 방식과 성별불쾌감이나 자신의 신체에 대해 느끼는 불편함을 이용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의학적 및 외과적 개입을 어린 이들에게 서두르게 하는 행태를 비판한 바 있다. [GN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현장 리포트

예수님 버리고 유대교로 개종하는 알리아 운동... 선교사역에 '찬물'

인도 마니푸르에 자신들을 북이스라엘 왕국에 거주하던 므낫세 지파에 속하며 '브네이 므네세'라고 믿는 쿠키(Kuki) 종족의 후예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을 성경의 말씀대로 고토로 돌아가도록 돕는 '알리아 사역'에 한국교회가 적지 않은 규모의 재정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현지 기독교인들의 반응을 청취했다. <편집자>

샤베이 이스라엘 히브류 센터 (Shavei Israel Hebrew Centre) 방문기

쿠키 종족 숨진봉 지파를 다녀와서, 일전에 인터뷰 했던 쿠키 종족 침례교회(Kuki Baptist Convention Centre Church)에서 주일 대예배를 마친 후, 걸어서 2~3분 거리의 유대교 회당에 다녀왔다.

사실 이번 취재의 목적은 쿠키 종족 유대인을 만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만나는 것이었기에, 입장하는 것이 가능하면 사진이나 찍고 오자는 생각이었다. 또 회당 내부의 유대인들과 정식 인터뷰를 했을 때, 혹시 필자의 글로 인해 그분들이 불이익을 받게 될까 염려되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래서 그분들이 등장하는 사진도 최소화했다.

종의 유니폼처럼 늘상 착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남자들은 모두 키파(유대 전통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까만 머리카락에 까만 키파를 핀으로 고정해, 자세히 보지 않으면 착용여부를 알기 어려웠다.

내부는 아주 작았다. 1층에는 회당 관리자(사찰)인 '다바이(?)'라 불리는 이들의 가족이 살고 있었고, 또 한 칸에 '월경 중인 여성들이 격리되는 방'이 있었다. 2층에는 50~100명이 겨우 들어갈 만한 회당이 있었다. 그곳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두 갈래로 나누어져서 한 쪽은 여성용, 한쪽은 남성용을 구분해 사용되고 있었다. 회당 내부에는 토라가 설치된 지성소 비슷한 곳, 그리고 토라를 읽는 중앙의 제단, 그리고 여성들이 커튼 너머로 소리만 들을 수 있는 장소로 나누어져 있었다.

이분들의 복장이나 회당 구조가 아주 보수적이었다. 이스라엘도 가보았지만, 거기서도 키파나 여성 머릿수건을 안 쓴 이들이 더 많았다. 혹시 여성들을 위한 랍비가 따로 있냐고 물으니, 여성은 결코 랍비가 될 수 없으며 남자의 일과 여자의 일은 구분된다고 했다. 그래서 나도 이스라엘에 가 봤는데 개혁파에는 여성 랍비도 있다고 하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

지킨 해로부터의 기원이라는 것을 알려드리자 도리어 놀라기도 했다. 대화를 해보니 이분들은 유대 전승에 대해 모르는 게 많았다.

이곳에 랍비가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이스라엘에서 온 랍비가 어쩌다 한 번씩만 온다고 했다. 그래서 마니푸르 유대인으로 랍비가 되신 분도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몇몇 이름과 함께 대여섯 명이 있다고는 했지만, 모두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것 같았다. 결론적으로 현재, 마니푸르에는 랍비가 상주하는 회당이 하나도 없는 듯 했다. 그리고 미조람 주에도 미조 종족이나 친 종족을 위한 회당이 있다고 들었지만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었다.

취재 여행을 마치며

이것으로 마니푸르의 추라참푸르 취재 여행을 마친다.

'알리아 운동'에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 마니푸르에서 가장 오래됐고 가장 큰 회당이며, 어쩌면 제대로 기능하는 유일한 회당인 이곳, '세바 이스라엘 히브류 센터'는 1976년에 세워졌다. 그러나 마니푸르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는 1901년에 세워졌으며, 1950년대부터 극히 일부가 유대 정체성을 말하기 시작한 쿠키 종족 역시, 1914년부터 교회를 세



▲ 1901년에 세워진 마니푸르 주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 제공: 원정하 목사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인도에는 심각한 코로나 재앙이 있었다. 이곳은 세계 2위 코로나 감염 지대였고, 국립병원마다 검은 봉지에 쌓인 시신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다. 그런 와중에도 나와 인도 내 여섯 도시의 동료 선교사들은 매일매일 레드 존(감염지역)들을 다니며, 만화 전도책자와 더불어 식량, 마스크, 의약품, 비누 등을 나누었다. 우리 몸바이 팀만 11개월에 걸쳐 빈민가 3만 7500여 집의 문을 직접 두드리며 목숨을 걸고 사역을 했다. 이들 숫자는 구호품 포장지 주문 수량이어서 비교적 정확할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우리 팀의 리더였던 수라지 방게라 목사는 코로나 감염으로 순직하기까지 하셨다.

그런데 바로 그 해에, 여섯 도시(몸바이, 델리, 푸네, 세나파티, 방갈로르, 첸나이) 선교 팀의 긴급 구호 사역을 위해 한국에서 들어온 재정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헌금이 마니푸르의 기독교인들을 유대교로 개종시키는 데 쓰였다. 이것을 알았을 때에는 정말 허탄함을 금치 못했다. 3억 원이 넘는 재정 중 1% 미만, 단 300만 원만 들여서 현지답사를 했더라도, 이런 불확실한 목적을 위한 귀한 헌금을 아낄 수 있지 않았을까?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서 못 와봤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때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와서 생명 걸고 사역한 선교사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리스도의 종이려면, 성도들의 헌금 집행을 위해서 그 정도의 각오와 결기는 있어야 한다. 필자 역시 한국교회의 잘못으로 사랑하는 인도의 기독교인들의 유대교로의 개종을 막기 위해 이번엔 100만 원 이상의 재정과 7일의 시간을 투자했다.

어쩌면 대한민국의 선데이 크리스천들 중에도, 미국 시민권과 정착 지원 자금이 정착 훈련까지 해 줄테니 천주교 등으로 개종하라는 권유를 받는다면 분명 유혹을 느낄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인도 마니푸르나 에티오피아, 그리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등 제 3세계와 이스라엘의 삶의 격차는 이루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래서인지, 알리아 운동을

통해 이스라엘에 간 이들은 대부분 제 3세계 사람들이다.

혹시 한국 성도들의 알리아 운동으로 인해, 동유럽의 기독교인들이나 에티오피아 테와히도 정교회 교도들, 우크라이나의 정교회 신자들 중 믿음이 적은 누군가가 '알리아'의 대상이 되기 위해 유대교로 돌아간 일은 없었을까? 유대 피가 조금 섞였거나, 심지어 그나마도 없었던 이들 중 누군가가 말이다. 또 이로 인해서 갈라진 가정은 없었을까?

마니푸르에서는 그런 일이 확실히, 분명히 한국 성도들의 돈이 기독교인들을 유대교로 개종시키는데 쓰였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확인할 만한 제도적인 장치는 존재하는가? 누군가 알리아 운동으로 1만 명의 유대인을 이스라엘에 보냈더라도, 그로 인해 한 명이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개종했다면 그 운동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옷을 찢고 통회하며, 그 지역 목회자와 선교사들 및 이로 인해 유대교와 기독교로 갈라진 가정들마다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며(알리아와 상관없는 필자 역시 가는 곳마다 사죄를 해야 했다.) 회개의 여행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도 '알리아'를 할 때보다 수고와 재정은 훨씬 덜 들 것이다.

'영적인 자극'이 곧 '은혜'는 아니다. 그리고 가슴 뛰는 낭만적인 이슈를 만들고, 거기에 돈을 내는 것이 곧 선교는 아니다. 십자가는 핑크빛이 아니라 핏빛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략 회의에 참석해서 예언을 성취하는 대단한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단순한 종들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이미 믿는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그 외에 가난한 이들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짧은 인생은 부족하다. 더 이상 자극적인 주제들에 미혹되지 말고, 단순하고 거룩한 선교의 길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 [GNPNEWS]

원정하 목사(본지 인도 통신원)



▲ 왼쪽 사진의 하늘색 티셔츠 입은 사람이 이스라엘 시민권을 얻은 인도 유대인 여성이다. 오른쪽 사진은 토라(모세 오경)가 비치된, 예루살렘을 향한 벽이다. 제공: 원정하 목사

회당 문을 열어준 사람은 이스라엘 시민권을 이미 받고 잠시 고향을 방문한 여성이었다. 그분은 알고 있는 대로 이모저모를 설명을 해 주셨지만, 원래 이곳에 사시는 다른 여성들은 모두 담배를 피우며 우리를 심드렁히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다. '당신 같은 외국인들 워낙 많이 왔다 갔지.'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여성들은 모두 일종의 터번을 쓰고 있었다. 사실 이스라엘에서도 모든 사람이 쓰는 것은 아니었지만 마니푸르 유대인 여성들은 일

다."라고 잘라 말했다. 건물 외벽에는 몇몇 돌판들이 붙어있었는데, 연도가 5000년을 넘어가는 히브리 달력이었다. 제리 형제와 데이브, 그리고 차오 선교사가 '이 연도가 무엇을 표시하는 것이냐?' 혹은 '저 회당의 구조는 어떤 의미이냐?' 등을 물었다. 그러나 안내해 주시는 여성은 전혀 대답을 하지 못했다. 오히려 내가 나서서 이 회당의 지성소 비슷한 커튼(토라 보관된 곳)은 예루살렘의 방향이며, 또 이 히브리 달력은 모세와 백성들이 첫 번째 율월절을

왔다. 만일 이들이 진정 유대인들이라면, 교회보다 회당이 수백 년 먼저 세워져 있었어야 한다. 실제로 내가 사역하는 몸바이를 비롯해서, 푸네, 코친 등 인도 서부와 남부에는 그렇게 오래된 유대교 회당들이 적지 않게 있다.

하지만 마니푸르의 유대교인들은 100% 기독교 배경에서 개종한 이들이다. 그러므로 이들 유대교인을 이스라엘로 보내는 것은 과학적으로도(DNA 검사), 인류학적으로도(부족 내 유대 전승 등), 무엇보다 선교적으로 합당하지 않다.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물품 나눔으로 이주민을 섬기는 김창식 선교사 (하나되는 교회)

• 1면에 이어
- 시는 언제부터 쓰셨나요?
“저는 시와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따로 문학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에요. 다만 성경 중에 다윗의 시편을 좋아했어요. 다윗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감정들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더군요. 저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면 마음이 편해졌어요. 내 마음을 주님께 토로하듯 조금씩 시를 써봤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니 여러 지인들이 함께 있는 소셜미디어(SNS) 그룹 채팅방에 시를 올렸는데, 사람들이 많이 공감해 주더군요.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주님께 토로하듯 기록한 글이 시가 된다

- 선교사님의 살아온 이야기를 소개해주세요.
“살아온 이야기를 하려면 긴데, 시집 속에 다 들어있어요.”
김 선교사는 ‘거라사 광인의 찬양’이라는 시를 읽었다.

<거라사 광인의 찬양>

아침에 눈 뜨면
조용히 밀려오는
행복의 물결들이
내 영혼에 넘친다.

한때는 하루가 시작된다는 고통에
눈뜨기조차 싫었다.

죄악의 사슬에 매여
귀신에게 사로잡혀
난 밤낮 울부짖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였다.

가족들도 다 떠나고
의식마저 희미해져
난 절망의 바다에 허우적거리는
인생이었다.

그러나 주님 내게 찾아와 주셨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나를 찾아와 주셨다.

그 사랑으로 날 안아주시고
하늘의 권세로
악한 귀신들 쫓아내 주셨다.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큰 은혜 베푸셨다.

나 살아가는 동안
주님 찬양하리라!
내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
전하리라!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
전하리라!

“이 시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 영적상태였어요. 굉장히 힘든 상태였죠. 실패와 어려움이 많았어요. 사업 실패도 하고, 가정도 한 번 깨지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 거라사 광인이 새로워진 것처럼 저의 삶도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하게 됐어요.”



▲ 국제기후환경산업전에서 '두루도라' 직원들과 함께. 제공: 김창식 선교사

- 언제 주님을 만나셨나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특히 어머니는 늘 기도하시고 신앙이 좋은 분이셨어요. 저는 젊었을 때 힘하게 살았기 때문에 늘 어머니의 기도제목이었어요.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30살 때 우연한 기회에 전도를 받으면서 회심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됐어요.”

30살에 전도받아 회심하고 변화된 삶 시작

- 선교사로 헌신하기까지의 시간들이 궁금합니다.
“제 고향이 여수에요. 2007년도 여수에는 선원으로 와 있는 중국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서 부담감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은 한번 출항하고 나면

보름씩 있다가 돌아오는데, 이 배들을 찾아다니면서 중국어 성경과 전도지를 나눠줬어요. 그러다 보니 중국인 교회가 생기고, 외국인 센터가 생기게 되면서 70명 정도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사역이 활발해지다 보니 저를 도와주시던 한 장로님께서 이 길을 계속 가기 원한다면 신학을 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렇게 그 사역을 마무리하고 광주로 와서 신학교에 다니게 됐어요. 학교에 다니면서도 주간에는 이

주민 사역을 하고 야간에는 신대원에 다니면서 사역을 이어갔어요.”
- 지역을 옮겨서 사역을 계속 하셨군요.
“이주민 사역을 하다 보니 이주민들이 먹고 센터 운영비도 마련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자립이 안 돼서 막노동을 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 주변 교회들에게 협조를 요청해서 이주민 대상으로 하는 물품 나눔 센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물품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필요 이상으로 들어오다 보니

누는 것도 한계가 있고,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기도하면서 찾아보다가 외국에서는 한국 재활용품들이 인기가 좋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 물품들을 수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신대원 1학년 때 회사를 설립하게 됐어요. 재정이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마침 정부에서 실패한 기업인들에게 재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이러한 도움을 받아 기독교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어요. 물품을 모으고 수출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고, 물품을 선교지로 보내 나누기도 하고 팔기도 하면서 재정 자립을 목표로 회사가 만들어졌어요. 회사 이름을 ‘두루도라’라고 지었어요. 도라는 그리스어로 선물이라는 뜻인데, 두루두루 선물을 전하는 회사가 되자는 의미죠.”
- 사모님이 외국인인데, 결혼을 어떻게 하게 되셨나요?
“한국에 와 계신 인도 목사님을 어느 날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그분과 교제하면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좋은 처자 있으면 소개시켜달라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정말 사진을 보내오셨더군요. 그래서 인도로 가서 자매님과 선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결혼을 해도 고생을 할 상황이어서 솔직하게 제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래도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나는 집도 없고, 정해진 급여도 없고 결혼을 해도 고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래도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인도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게 됐어요. 그제 2010년이네요.”
- 두루도라와 선교사님의 비전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회사를 창업하면 무조건 잘 될 줄 알았어요. 3년 넘게 어려움이 매우 많았어요. 사기도 당하고 손해가 나면서 컨테이너 두 개가 침수 돼 물건들을 모두 버려야 했어요. 빈 컨테이너에 가게를 오픈할 수 있는 컨테이너샵 프로젝트를 필리핀에서 하려고 준비하다가 상황들이 여의치 않아지면서 포기하기도 하고 여러 고비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이런 어려움들을 잘 넘기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한국과 선교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저는 지금 이주민 사역과 목회를 겸해서 하고 있어요. 이주민 교회를 3년 전에 개척했는데,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목회와 더불어 이주민 사역에 집중해서 제자 양육을 하는 꿈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동안 실패도 많이 하고, 시행착오도 많았어요. 믿음도 있고 재정도 있다면 좋겠지만,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살자고 생각하면서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어요.”
- 최근에 출간한 ‘모지리 토마토’ 시집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그 책에는 저의 영적인 변화, 회심, 성화되는 과정, 사람들을 보는 시각의 변화들, 삶의 자세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많이 눈물 흘렸던 시간들이 담겨있어요. 광주에는 영산강이 있는데, 제가 영산강 벤치에 앉아 많이 울었어요. 앞이 막막할 때 거기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 5면에 계속



▶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도를 방문해 포즈를 취했다. 제공: 김창식 선교사



선교 통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생기는 선명한 영적 국경

주일 예배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온 피난민 가정을 만났습니다. 한 남성이 2주간 정부 허가를 받아 아내와 아이를 피난지에 보내기 위해 크로아티아까지 온 것입니다. 그는 다시 아내와 아이를 이곳에 남겨둔 채 우크라이나로 돌아가야 합니다. 현장에서 목격하는 그들의 삶과 고난, 가족의 이별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평화와 상생의 땅이라고 여겼던 유럽의 가치들이 무너지고 서서히 이념과 체제 진영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유럽 땅에 참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길 원합니다. 나의 평안이 당연한 것이 아니며, 오직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차가 고장나면 입고하여 수리하듯, 육신의 약함은 나를 삶과 사역에서 많은 부분을 중지시키고, 영혼의 공업사로 입고케 했습니다. 활동이 줄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말씀과 기도 시간도 늘었습니다. 주께선 행

함이 아닌 거함의 장소로 인도하셨습니다. '자아의 행함이 아닌 주 안에 거함'으로 살아야 함은 알면서도, 정작 실제 삶에선 거함보다 행함에 따라 좌우된 내 모습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용서와 주의 위로를 누렸습니다. 최선은 좋은 것이나, 마른 우물 바닥을 긁어대는 최선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먼저 우물에 물이 들어오길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묵상과 기도의 시간이 영혼의 우물에 물이 고이게 합니다.

지난 기간 동안, 저의 사역은 한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중심이었습니다. 가르칠수록 복음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영원한 지혜임을 확실하게 됩니다. 청중의 귀가 열려야 한다는 것, 그 귀는 들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그렇기에 말씀을 가르치는 이 시간과 기회가 얼마나 복된지 깊이 느낍니다. 유일하게 이 땅

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복된 기회입니다.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는 수십 수백 명의 무리보다 들을 귀가 있는, 듣고 싶어하는 적은 무리의 소중함을 압니다. 수가 적으면, 주눅이 들고 낙심하고, 스스로가 무능한 것 같은 세상의 식견을 거부합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는 성경의 진리를 믿습니다. 바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나 선명한 영적 국경이 그어지고, 의의 길과 불의의 경계에서 의에 속한 자가 상대적으로 무척 적음을 알게 됩니다. 바른 지식은 낙심하지 않게 하고 다만 내가 주 안에 바로 서 있는지를 성찰하게 합니다.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인데, 육신의 출생도 개인의 주권밖의 일이라면,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도 개인의 주권밖의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적 은혜요, 그의 주권 아래 있으며, 선교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순종함



© 복음기도신문

으로 이를 믿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읽기 수업에 새롭게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귀가 열리고 복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말씀에 사모함이 있지만, 복음에 대한 이해가 윤리 도덕적인 학

생도 있습니다. 가톨릭의 영향을 받은 전형적인 경향입니다. 인간의 의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전적으로 깨닫도록 기도해주시시오. [GNPNEWS]

크로아티아 자그레브=김경근·문정미 선교사

• 4면에 이어 Interview

신앙 간증 담은 시집 모지리 토마토, 신인문학상 받아

나면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겼죠. 이런 내용들이 시로 고백이 돼 있어요. 시는 투박해요. 전라도 사투리도 들어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게 시냐?' 할 수도 있는데, 저의 고백이니까요."

- 모지리 토마토는 무슨 뜻인가요?

"모지리는 전라도 사투리에요. 말과 행동이 똑바르지 못하고,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나 물건들을 볼 때 모지리라고 해요. 제 인생이 모지리 같았기 때문에 토마토에 빗대어 표현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해주더군요. 남들이 봤을 때는 똑똑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인데도, 본인이 느끼기에는 모지리 같은 부분이 있어서 많이들 좋아하고 공감해주는 것 같아요."

김 선교사는 모지리 토마토를 바로 낭독했다.

<모지리 토마토>

우리 동네 노점에 과일 파는 할머니가 있다.

그릇그릇 바구니에 각종 과일 담겨있다.

그중 가득 담긴 과일 바구니 앞에 쓰인 글자

모지리 토마토 겁나게 많이 담아 3천 원

나는 모지리 같다. 못생기고 불품없는 모지리 토마토 같다.

난 돈도 없다. 공부도 못한다. 내세울 게 하나 없다.

시장에서 한바구니 가득 담아 3천 원에 판매하는 모지리 토마토다.

그래도 모지리 토마토를 찾는 사람 있다.

모지리 토마토로 맛있는 요리를 하며

행복한 저녁 만찬을 즐기는 가정이 있다.

모지리 같아도 쓰임 받으면 행복하다.

- '모지리 토마토' 시집 중에 대표시를 소개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번에 대한시문학협회에서 상 받은 것 중 하나가 '섬진강에서'라는 시예요. 이주민 사역자의

자세를 시로 표현한 것이죠. 강물과 바다가 만나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인간의 문화와 또다른 문화가 만나서 서로가 서로를 포용하는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을 노래한 시예요."

<섬진강에서>

섬진강이 바다로 흐른다
굽이굽이 먼길 험한 길
목적지에 다다른 강물을 남해바다는
기꺼이 반갑게 맞이한다

바다와 강이 만나는 곳은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새로운 생물들이 터전을 잡고 살아가다

우리 인생도 새로운 문화와 문화가 만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간다

나도 너처럼 남해바다처럼 서로가 서로를 반기며 포용하는 인생이고 싶다

- 마지막으로 기도제목 말씀해주세요.

"다른 단체와 교회 공간을 함께 사용하다 우리가 그곳에서 나왔어요. 당분간 천막을 치고 사역을



▲ '모지리 토마토', 김창식 저, 도서출판 라비사, 값 1만 5000원.

해야 합니다. 더욱 기도에 전념하며 이주민 사역을 위한 좋은 장소로 이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시집 '모지리 토마토' 북 콘서트를 모교인 호남 신학대학교에서 11월 5일에 하게 되었어요. 시집을 통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동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특별히 시집도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기독교 사회적 기업인 '두루도라'가 정상화되어 다시 이주민 선교의 재정 지원과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인도로 수출이 재개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GNPNEWS]

C.K.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2. 9. 29 ~ 10. 18 (가나다 순)

개인

권순호 권혜령 김광희 김명순 김선례 김선희 김수미 김숙자 김신애 김영순 김정희 김형숙 박경희 박신희 신주희 신혜경 안민자 안수경 양애숙 오세주 유영권 이삼연 이상현 이영옥 이은주 이장원 이주선 이진희 장근혜 정금자 정요한 조형광 차인순 최근희 최정욱 하은숙 홍고집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고현교회 대구서현교회교정사역 동원교회 문광교회 반석중앙교회 샘물교회 신한테크 양덕원감리교회 은강교회 은혜신일교회 주나임교회 주만교회 주소망교회 참종양터교회 함안순복음교회 헵시비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장영호(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총남, 다01355. (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교회 (2)

위기의 때는 잠깐 멈춰 서서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렘 6:16)

잠시 멈춰 서서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초점이 정확히 맞아 있는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을 온전히 이해하고, 눈길 바꾸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않고 변질하지 아니하고, 부르신 부르심에 바로 서 있는가 살펴보아야 한다.

위기에 처한 교회가 제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그 든든한 기초 위에 바로 서 있는가! 혹시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기를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라! 하신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꼭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이 어리석어 위기를 만나면

그 기초가 드러나서 무너짐이 심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주님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라’(시 11:3) 말씀하신다. 내 인생을 버려주며 의지하고 있는 내 터가 어떤 것인지 보아야 한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 의지하고 아무거나 기반으로 삼았던 사람은 그거 무너지면 끝장이다. 그런데 의인은 말한다. ‘모든 것이 흔들리는 날, 터가 무너지면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께로 달려가리라.’

내 인생의 터를 지금 어디에 두었는가! 교회는 과연 어느 터에 서 있는가! 세상 여론, 사상 철학, 어떤 집단의 교권이러는 터 위에 서 있는가!

주님은 교회를 그런 터에 세운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일러스트=이예민

다. 교회의 터는 영원히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무엇도 교회의 터가 될 수 없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의 터 위에 분명히 서 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건물이나 다른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건물이나 다른 조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불리움을 받은 무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골 1:28)라고 하신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십자가로 거듭난 백성들

교회는 생명력 있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 된 생명의 유기적 공동체이다. 그리

스도의 생명력이 각 지체마다 흘러가서 모든 지체 안에 예수 생명이 충만하게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 목표를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과연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이 부르심의 목표에 합당하게 그 목표를 향해 자라가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한다.

참된 믿음으로 살아있는 새 피조물 된 성도로 이루어진 거룩한 교회, 세상과 죄악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최후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교회! 이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2018년 7월)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복음기도동맹군 은혜 광고*

복음기도신문 아이폰 앱 공개

복음기도신문 아이폰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됐습니다.

앱스토어에서 '복음기도신문'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Download on the App Store

안드로이드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이미 사용 중에 있습니다.

책임교사를 위한 **교육백서**

GPM 도서

값 8,000원

다음세대 선교사 양성을 위해 헤브론원형학교는 교육의 주체를 교사, 책임교사로 명명된 부모, 신앙의 터전인 교회와 함께 기도하며 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땅의 다음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이런 용감하게 자신들더러 순종하는 순종의 전문가, 용감한 정예병으로 자라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의 역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용의 선교사(순회선교사, 로그미션 대표)

“책임교사로, 교육선교사로 각각 헌신하여, 피 묻은 생명의 복음을 마을마다 동네마다, 종족마다, 나라마다 증거하고, 거짓과 탐욕, 어둠과 죽음의 영에 사로잡힌 자녀들이 주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생육하고 변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길 기도하며 주님의 보혈로 쓴(주홍글씨), <책임교사를 위한 교육백서>의 일독을 강추합니다.”

장갑덕 목사(대전 카이스트교회)

복음과기도미디어

구입문의 **아진과보아스 Jakin and Boaz**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환자의 영육을 돌보실 분 함께 해요!

병원을 주님께 드리며 재개원 예배를 드렸습니다. 선교적 존재로서 예수님의 제자되어 환자의 영육을 돌보실 분! **“함께 해요!”**

모집

영양사
(간호조무사 자격증 있는 분우대)

연수원소장
(수련원, 연수원 근무 경험자우대)

문의

삼성연합의원·삼성초대교회 | ☎ 010-8528-3217

삼성연합의원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 복음과 기도의 삶을 핵심가치로 삼고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을 위해 은혜로 게재되는 광고 지면입니다.



복음의 소리 1670-3160

워크숍 지상중계

이 코너는 GPM(복음과기도미디어)이 운영하는 복음의 소리 316 전화(1670-3160)가 진행한 '신앙 상담 시에 알아 두면 도움이 되는 정신의학' 주제로 열린 상담자 세미나(강사 권서영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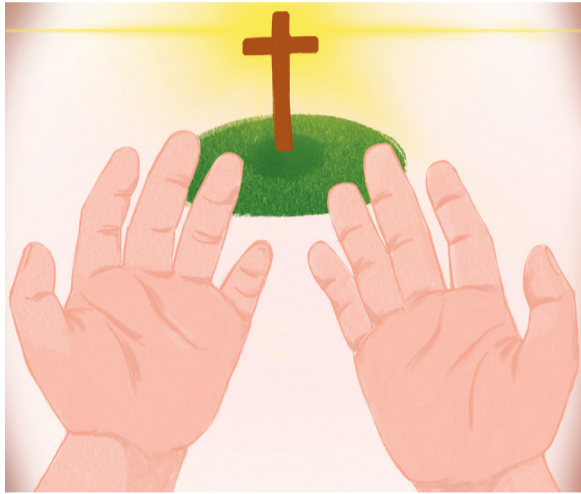
선교사로 순종한 첫 한 달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엡 1:6)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한국을 떠나 온 것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되었다. 주님이 가게 하시는 걸음이라 처음 밟는 땅이지만 두려움 없이 왔다. 그런데 에티오피아를 경유하면서 생긴 작은 일로 모든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며 모든 것이 염려되었다.

아침 일찍 영국에 도착해 짐을 풀고 런던에서 3박 4일 머물기로 했다.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고자 런던열방교회에 도착했다. 코로나 19가 오기 전 남편이 팀들과 함께 방문했던 곳인데 모두들 반갑게 맞아 주셨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예배를 통해 모든 것이 낫설고 불편한 마음을 세워주셨다. 주님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영어도 안 되고 모든 것이 낯선 이곳에서 살 수 있을까?’ 두려워 하는 내게 “은미야, 너는 나를 사랑

하는 자리로 나오기만 하면 돼.”라고 말씀해주셨다. “아멘!! 그럼,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언어가 안 돼도 되겠네요.” 그렇게 주님과 사랑하며 교제하자고



일러스트=고은선

부르신 자리임을 확증해 주셨다. 일정을 마치고 우리가 살 집에 도착했다. 한국에서 지나가는 말로 ‘방이 3개면 좋겠지만, 렌트비가 비쌀 것 같아 1개만 있어도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주님이 방 3개인 집을 허락해 주셨다. 감사를 드리며 이

곳을 주님의 집,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런데 그날, 바로 정규 기도모임이 만들어지고, 곧 이어 한 목사님 부부와 함께 1박 2일의 말씀기도 시

간을 갖게 되었다. 할렐루야! 주님의 집을 통해 누구나 주님을 예배하고 위로와 사랑을 얻고 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렸다. 오전 11시엔 영국 예배, 오후 2시 30분엔 한인 예배, 오후 6시 30분엔 영국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영국 예배 때 전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통해 ‘그동안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는데 내게 전혀 들리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나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 그 시간을 통해 주님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출 3:5) 말씀하시며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만 듣고 나의 의지나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것을 말씀하셨다. 하루는 목사님 부부와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교회 안쪽 벽면에 핀 곰팡이를 제거하고 페인트칠을 하게 됐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기뻐할 성도들로 넘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을 이곳에서 배우고 익히며 승리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되었다.

이제 첫 걸음을 뗐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은혜를 찬송하는 예배자로 보내신 뜻과 말씀대로 살게 하시기를 간구한다. [GNPNEWS] 안은미

신경전달물질, 감정과 생각·행동에 영향

+ 신앙 상담 시 도움이 되는 정신의학 (4)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조절하는 뇌의 신경시스템을 이루는 여러 신경전달물질 중 대표적으로 도파민은 동기를 갖게 하고 주의 집중, 욕구와 관련이 있다. 또 성취감, 기쁨을 느끼게도 한다. 세로토닌 또한 대표적인 신경전달물질로, 세로토닌의 활성 저하는 슬픔, 불안, 우울함 등의 증상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신경전달물질들은 우리의 기분, 생각에 많은 영향을 미쳐서 행동의 변화에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

물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에 신경전달물질이 모든 우리의 정신을 지배한다고 단순히 정의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인 인간이기 때문에 현대의학이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해도 여전히 인간의 육체조차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영적인 영역과 연관되어 있는 인간의 정신영역에 대해서는 이해함에 있어 많은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신체 질환들과 마찬가지로,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신경전달물질의 이상에 의해 생기는 몇몇 정신 질환들의 발병 기전에 대해 어느 정도 밝혀졌으며 현재도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주요 정신 질환은 뇌의 어떠한 신경전달물질 기능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빠른 의학적인 개입과 치료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정신 질환은 왜 생기는 것일까? 많은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정신과 의사에게 이 질문을 하지만 사실 그 대답은 간단하지 않다. 우리 인간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두 가지 원인으로 정신병이 발병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중 밝혀진 몇몇 일반적인 원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계속> [GNPNEWS]

부흥을 위하여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냐고요?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이에 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 주민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한다. 이번 호에는 지저스야미 10월 호에 소개된 탈북민 출신 연모세 선교사의 간증을 요약, 정리했다. <편집자>

남도 리원이라는 곳에서 출생했다. 아버지는 대한민국에 세 번 간첩 활동을 하셨고 아버지의 공로로 나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군입대를 하게 됐다. 그러나 군생활 중 이모부를 고문치사한 대대 책임 보위부 지도원을 구타해 10년 형을 선고받

고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세상에 지옥이 있다면 북한 감옥이 아닐까. 밥 한 덩이를 물 한 그릇에 말아 불려 먹는데, 허기를 달랠 수가 없고 거기에 강제 노역까지 당한다. 배가 고파 워라도 주워 먹으면 때리고 못 먹게 한다. 한국 감옥에서는 자유를 차단하지만 북한 감옥에서는 먹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교화를 시키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영양실조가 왔고 3도라고 했다. 병방에 들어갔는데 그 방에 사람들이 하루에도 3~4명씩 죽어 나갔다. 오늘, 내일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내게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아버지의 공로로 병보석으로 나가게 됐다는 것이다.

북하게 되었고, 중국에서 하나님을 기적적으로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모세의 사명’을 주셨고, 북한으로 파송됐다.

많은 분들이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느냐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아픈 새끼손가락 같은 북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없겠는가!’라고 말한다. 그들의 수는 우리가 짐작도 할 수 없다.

고난의 행군 때 많은 사람이 중국으로 탈북했다. 그들은 중국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다양한 경로로 북한에 들어갔다. ‘고난의 행군’하면 우리는 300여만 명이 굶어 죽고, 수십만 명이 해외로 나가서 유리방향하고, 자매들이 인신매매 당해서 중국에 팔려가는 가슴 아픈 것들만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너

머에서 일하고 계셨다.

2012년, 내가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는데 국정원 간부가 찾아와서 물었다.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다는데, 지하교회 성도들이 한 20만 명 된다는데, 사실이나?” 그래서 나는 “왜 20만 명만 되겠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만 100명이 넘는데, 수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파송되어 들어갔는데, 왜 그렇게만 되겠습니까?”라고 대답했다.

하나님께서서는 보위부 법을 바꿀 정도로 북한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다. 원래 고난의 행군 초기에는 중국에 다녀온 월경자들의 집 속에서 성경책이 나오고 교회에 갔다 왔다고 하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고 죽이기까지 했다. 그런데 몇 년 후, 탈북하여 중국에서 교회 갔다 오고 가방 속에서 성경책이 나와 불법 월경으로 처리해 일

반 경제범 교화소로 보내졌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 정치범 수용소에 보낼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많은 사람이 중국에서 복음을 들었고 또 성경책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들은 그 복음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때에 그 복음이 역사하면 그 사람은 주님께로 돌아온다.

북한은 거대한 감옥이다. 그들은 인간의 육체에 가둘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심겨지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를 그들이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멈출 수가 없다. [GNPNEWS]



▲ 탈북민이 그린 정치범 수용소. 북한의 수용소에서는 정치범들에게 일주일에 30분씩 햇볕 쬐는 시간을 주는데 이때 물레 풀을 뜯어 먹는다. 하지만 그러다 틀기만 그대로 죽임을 당한다. 제공: JESUS ARMY

20주년 2022 완주감사예배로 초대합니다!

구원의 햇살로
기쁨을 들라!

사 62:1, 10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를 성
기도24·365

주최 : 기도24·365본부

후원 : 로그미션, 복음과기도미디어, 복음기도동맹사무국,
순회선교단, 요셉의창고미니스트리,
전능자의그늘미니스트리, 헤브론선교대학교,
헤브론원형학교(가나다순)

날짜 : 2022년 11월 24일(목)

시간 : 오후 6시 30분

장소 : 서울 화양감리교회(최상훈 목사)

문의 : 010-387-24365, 010-9440-4365

www.prayer24365.org